



암(癌) 연구 왜 신체 일변도(一邊倒)로 변했는가?

우리나라 고유의 고전의학에서는 물론이고 1930년대 이전까지의 저명한 서양 의학자들의 소견이 '마음의 상태가 암 발생에 깊은 관련이 있다' 라는 데 대체적으로 일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193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암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에 대한 연구가 신체와 물질 일변도로 변해 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등장으로 의학이 정신의학과 신체의학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또 내외과로 갈라지고 다시 수개의 계열 또는 기관별(器官別)로 분과화 됨으로써 마음과 신체의 관계나 각종 기관의 상호관계 등을 다루는 종합적인 의학이 없어져 버렸다.

이로 인하여 심리학은 숫제 신체의학과는 무관한 학문인 것처럼 되어버렸고 또 의학이 분야별로 전문화하여 분리되어 버림으로써 결과는 신체 쪽에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마음(감정)쪽에 있는, 암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가 어렵게 되어 버렸다.

2. 전신마취, 외과수술, 방사선요법 등의 기술의 진보에 따라 단순히 신체적 치료만으로도 치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주류를 점하게 되어 버렸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마음과 병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점차 희박해지게 되어 버린 것이다.

3. 인체는 엄연한 마음과 육체의 공동체로써 마음에 의해서 동작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체내의 각종 장기(臟器)의 생명력에 변화

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따라서 마음이 없는 신체란 시체나 마네킹과 같은, 한갓 물질의 집성체에 불과하여 아무 일을 할 수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상에서 일어나는 병변의 원인은 마음을 떠나서는 구명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학인 현대의학에서는 마음과의 관련성 보다는 주로 물질적 측면에서 발병 원인을 찾아내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의학으로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의학이 히포크라테스의 물활론(物活論), 액체부조화론(液體 不調和論) 등 유물적 의학론을 기초로 한 의학의 뒤를 잇고 있기 때문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사상이 병이 악마라든가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한다거나, 사면적(巫醫的) 치료 방법을 부정한 점이라든가 치료에 있어서 지혜로운 인생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 자연 치유론 등은 그의 통찰력의 넓이와 철학적 깊이를 헤아리기에 족하다. 그러나 병은 자연과학으로 연구 가능한 자연현상이라는 확신으로 의학은 자연과학에 근거를 두고 진단과 치료 또는 예방까지도 포괄한 하나의 과학적인 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의 의학 개념이 마음 쪽은 무시해 버리고 유물론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병이 인체내의 네 가지 액체의 부조화 때문일 것이라는 '액체 부조화론'을 제창하고도 부조화의 원인에 대하여는 해명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그의 의학 개념이 자연과학 쪽으로 치우쳐서 마음과 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데다가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기술한 이유들로 하여금
 《암의 발생 원인 및 암세포의 정체》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어쩔 수 없이 인체 쪽과 물질 쪽에서만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참고 하여, 비록 암상태에 있는 환자라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고 우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 가족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방법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샤먼들의 치료 개념을 부정하다 보니 샤머니즘이 인간의 질병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환자의 인간 관계나 영적인 감정 문제를 중시한 것까지도 무시해 버렸을 것이다.

4. 동양 의학에서도 퇴병론(退病論)에서 신체의 치료에 앞서 마음의 안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심기(心氣)나 심화(心火)니 하여 마음과 화기(火氣)의 일체성을 거론하면서도 정작 '마음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생명학적 해명은 없었다.

유물론적 서양의학으로써는 형이상학적 존재인 마음의 실체를 해명할 도리가 더더욱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과 신체와의 관계에 대한 매커니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5. 지금까지 의학계에서는 발병에 스트레스가 끼치는 영향을 인정하기에 주저하여 왔다. 왜냐하면 의학이 지금까지는 신체중심이어서 심리 상태가 발병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인 매커니즘을 검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스트레스가 어떻게 병을 유발시키는 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 용어들 중에는 병리학적 술어가 수없이 많으며 스트레스 현상을 말하는 숙어나 술어들 만도 수없이 많은 데, 불만족, 기진, 기탈, 탈진, 허기, 기절 등이 있다.

기분 나쁘다, 기차다, 기가 죽다, 기가 막히다, 기절초풍, 혼비백산 등도 모두 스트레스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생명에너지인 심기의 손상 현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분 손상, 기분 나쁨, 기분 상함이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도 굳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인 스트레스라는 말에 매달리다 보니 스트레스가 어떻게 병을 유발시키는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기술한 이유들로 하여금 '암의 발생 원인 및 암세포의 정체'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어쩔 수 없이 인체 쪽과 물질 쪽에서만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글을 참고 하여, 비록 암상태에 있는 환자라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고 우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 가족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방법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